

보도 일시	2022. 5. 12.(목) 15:00	배포 일시	2022. 5. 12.(목) 10:00
담당 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장 윤기한 (031-8025-5010)
		담당자	주무관 송지은 (031-8025-5013)

기후변화로 요동치는 여름 날씨, 수도권기상청 대비 서둘러

- 폭염 영향예보, 태풍 위험 상세정보 제공, 위험기상 특별기상 관측 -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여름철 방재기간을 맞아 폭염·호우·태풍·가뭄 등의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주말(5월 15일)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방재기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.
- 최근 여름철 기상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(서울 기준 39.6°C), 2019년 잦은 태풍(7개), 2020년 긴 장마(54일 지속), 2021년 짧은 장마(17일 지속)와 빈번한 소나기 등 날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.



【그림】 여름철 대비 분석 업무 수행 중인 수도권기상청 예보관(좌), 폭염 영향예보 포스터(우)

- 수도권기상청은 돌발·집중호우 기간(5월 15일~10월 15일) 동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·인천·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강홍수통제소·한강유역관리처 등 물관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 심도 있는 분석과 예보, 감시를 통해 더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.
- 특히, 여름철 빠르게 찾아오는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영향예보를 발표하여, 체감 온도에 따른 위험 수준과 분야별 상세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. 정보 전달이 취약한 야외 근로자와 농·어민 등에 효과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도 강화하였다.
- 태풍 내습 시에는 특보 현황, 예상 진로, 위험 시점정보 등을 포함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1일 2회 제공한다.
- 또한,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호우·태풍 등 위험기상 현장의 특별 관측을 수행하여, 사전 감시와 예·특보 기상업무를 지원한다.